

# 業務를 開始하던

韓國火災保險協會가 1973年 5月 8日 設立되어, 滿 1個月 25日만에 業務를 開始하던 지난 7월 2일.

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設立된 民間防災 機構로서의 앞날에 曙光을 비쳐주는 듯 前날 까지만 해도 무더위 속에 찌푸렷던 날씨가 겨도 快清했다.

이 날 開業式賀客으로서 첫 손님이 된 南惠祐 財務部長官과 崔珪圭 財務部次官이 協會에 들어선 時刻은 정각 8時 50分.

이어 李寶衡 大韓損害保險協會理事長을 先頭로 한 10個 原受社社長 및 姜聲郞韓國自動車保險株式會社社長, 李養浩 大韓再保險會社社長, 朴恩會 大韓保證險株式會社社長, 生命保險業界를 代表한 元鍾勳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社長 등이 차례로 들어섰다.

정각 9時, 協會正門 오른쪽 기둥에 南惠祐 財務部長官, 李豪商理事長, 金雲淑·李昌圭 兩理事 등 네분에 의해 보기에 또 鮮명한 「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」의 懸板이 달아졌다.

이어 南惠祐 財務部長官, 崔珪圭 財務部次官, 李豪商 理事長, 李寶衡 損保協會理事長 등 네분에 의해 開業「테이프」가 끊어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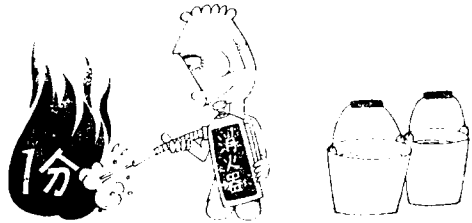
19층 講壇에서 開業式이 始作된 것은 9時 20分. 式場에는 政府關係者를 비롯한 內外 貴賓 2백여명이 參席했다.



司會者로부터 開會式이 宣言됐다. 協會의 金雲淑理事로부터 協會設立經過가 報告됐고 뒤이어 李豪商 理事長의 開業式辭, 財務部長官 및 李寶衡 損保協會理事長의 致辭 등의 順으로 式은 進행됐다.

이 자리에서 李豪商 理事長은 『協會의 主業務가 國民의 貴重한 人命과 財産을 保護함으로써 福祉社會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

# 그날



때 全任·職員은 무거운 責任感을 느낀다.』고 말하고 『賦課된 業務에 대해 최선을 다 할것』을 다짐했다. 이어 南憲祐 財務部 長官은 崔瑀圭 次官이 代讀한 致辭를 통해 『協會가 火魔로부터 國民의 財産과 生命保護에 힘써 줄 것』을 당부했다.

한편 李寶衡 損保協會理事長은 『協會가 말은 消火設備檢査, 安全點檢 等 業務遂行에 있

어 온 國民이 期待하는 이상의 훌륭한 成果있기를 기대한다』는 祝辭가 있었다.

이와 같은 式辭와 致辭 그리고 祝辭가 끝난 후 崔瑀圭 次官은 그間 協會設立 準備業務에 功이 컸던 協會의 安相勳 總務部長·崔運澤 點檢1部長·郭大濟 企劃調查部次長·金寬治 業務部次長 等 4명에게 財務部長官의 表彰狀을 수여하였다.

한편 이 날 하오에는 協會가 點檢業務를 開始하고 최초로 中區北倉洞 90의 3소계 삼양여관(건물주 최정식)에 安全點檢을 실시 하므로서 業務開始에 들어 갔다.

× ×

이 날 하오 7시에는 銀行集會所에서 「각텔·파티」가 盛況리에 열렸다.

이 자리에는 太完善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 長官, 南憲祐 財務部長官, 崔瑀圭 財務部次官 및 證券保險局長과 內務部關係者 多數, 그리고 損·生保를 망라한 保險關係者 等 約 2百餘名이 참석, 大盛況을 이루어 協會設立을 더욱 뜻 깊게 해주었다.

특히 이 날 南 財務部長官과 崔 次官은 上下午에 걸쳐 두 번씩이나 協會를 방문, 保險關係會社의 訪問에 異例의인 記錄을 낳았다는 것이 保險關係者들의 말이고 보면 協會의 前途는 마냥 揚揚 하기만 하다.